

<금강고려화학> PET제 불연 전자재사업

종합전자재 메이커인 금강고려화학(대표 정종순)이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불연건축자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강고려화학은 보온구실을 하는 유리의 바깥면을 PET필름으로 씌워 습기침투를 차단함으로써 습기 침투로 인한 단열효과 저하현상을 방지토록 하고 시공효율도 개선시킨 전자재 신제품을 출시했다. 유리원료나 안산암 등 국내 광물자원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환경친화제품이다.

금강고려화학은 불연보온단열재 「유리면」 「미네랄울」 「세라믹화이버」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나 최근 화재사고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연구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강고려화학이 불연전자재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료나 유리, 기타 전자재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지만 잠재시장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불연전자재 매출 1400억원을 기록했고, 2001년까지 17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은 유기질단열재의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나 유기질단열재는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화재를 급속도로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선진국은 90% 이상이 무기질 불연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1/1/29>

금강고려화학의 불연전자재 판매동향

(단위: 100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유리면	40 000	45 000	48 000
미네랄울	20 000	20 000	22 000
세라믹화이버	6 000	6 500	7 000
석고보드	75 000	89 000	94 000